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내가 짓고 받는 것이니 녹이는 것도 내탓

주인공에 못놓고 망설여요

문 매주 현대불교신문을 통하여 스님 말씀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 감명 깊게 듣고 나서도 스님 말씀대로 모든 것 일체를 주인공에게 맡겨 놓고 살아야겠구나 생각했다가도, 어떤 경계에 부딪치면 주인공에게 맡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 어떻게 하지' 하고 망설여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주인공에게 맡겨야 하는지요. 계획이 확정되면 실행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잘 될지 잘 안 될지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딸들이 남편을 가지게 됐고 좀 살만하니 이 늙은이들은 집이 되니까 이전 점점 멀리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또 잘못이 있었지요. 잘못 키운 죄가 있었지요. 처녀 때는 엄마를 그렇게 따르고 없으면 못 살듯이 하더니 이전 후회만 남습니다. 왜 내 살 길을 찾지 않고 자식들에게만 연연하고, 너나 살이라 나는 아무렇게 돼도 괜찮다 했는데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너희들이 이제 살만하니 부모도 좀 생각해라 하면 뭘 해 줍느냐고 화를 냅니다. 남편 역시 어떻게 일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없이 그냥 그날그날 주는 밥만 먹고 잠이나 자는 아주 게으른



그림·최주현

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외적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타이르기도 하지만 좀처럼 고인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큰스님께 여쭙보고 싶은것은 이런 마음이 욕심인지요. 그리고 이런문제가 과거의 업인지, 그리고 업이라면 없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책을 통해 읽고했는데 이런일로 큰스님께 질문을 드린다는것이 부끄럽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큰스님께 여쭙습니다.

답 욕심이라고 할것까지야 없겠죠. 또 업이라는 생각이 꼬달릴 것도 없어요. 그게 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 속에 짊어지고 나온 것이니 얼마든지 풀일수 있는 겁니다. '주인공! 너만이 좋아지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굳게 믿고 맡겨 놓으세요. 거울을 볼때마다 그렇게 해도 좋고, 한번 무겁게 맡겨놓고 그걸로 끝내셔도 좋고요. 다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곱담을 하고 속상해 한다면 그건 맡기는게 아니라 맡겼다가 도로 빼앗아 왔다가 하는 것이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너만이' 할때에 내 자생종생들하고 두루 통신이 되어서 좋아질겁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그와같이 우리들의 의식세계도 과거에, 참나전도 과거입니다만,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게 모두 입력이 되어 있다가 기회가 닿으면 술술 풀려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입력되었던걸 지우지 않는한 그게 풀려 나오는 건 독안에 숨어도 면할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생각, 느낌, 감정이 다 과거에 내가 입력해 놓았던 거기, 그 자리에서 나오는 줄을 걸고 나오는 쪽쪽 다시 놓아서 입력된 걸 지우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니 녹일 수 있는 것도 내 탓이다. 나하기 나름이라고 믿는 것 말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게되고 그렇게 흔들리면 놓아지지도 않음뿐 아니라 놓아진듯 싶다가도 다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도 내 몫이다. 자꾸 약해진 것도 거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나니 주인공이 알아서 해! 하고 무겁게 놓는게 중요하죠. 그렇게 놓고 나는 그저 열심히 뛰면 됩니다. 믿고 맡기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군더더기가 따를것습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일어나는 일체 생각·느낌·감정 과거 내가 입력해 놓은 것이니 다시 놓아서 지워야 합니다

답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지요. 주인공에 놓고 맡기라 한다고 뭘대로 되려하는게 아닙니다. 맡겨 놓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하인이 주인을 믿고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놓고 맡기라니 잘 되니 잘 못되니 하고 따지려 듭니다. 맡겨 놓았는데 왜 안되느냐는 거지요. -사자가 주인에게 그걸 따지니까? 그건 주인이 믿고 주인이 알아서 할뿐이고 나는 열심히 정진 했을 뿐입니다. 아, 일이 계획대로 안됐다 칩시다. 그것도 주인 몫이니 되놓으라는 겁니다. '잘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지' 하고 말입니다.

사람입니다. 저 역시 늙은 몸이라 남편이란 짐을 지고 외면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어찌 살아야 할지요. 혼자 몸으로 훌쩍 떠나고 싶을때도 있습니다만 용기도 잃고 삶의 의욕마저도 잃고 있는데 마침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또 대행 스님의 구도의 글이 담긴 한마음요전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답답합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비우려하니 잘 안됩니다. 갈 길을 알려 주십시오.

이제 늙어서인지 몸이 어느 구석이 안 아픈데가 없습니다. 다녔던 공장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부탁합니다.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침 저녁(밤) 기도도 합니다.

답 우리가 걸어갈때 한발씩 떼어놓고 또 떼어놓으면서 뒷발자국을 생각하면서 걷던가요? 그냥 한발 내어두고 또 한발 내어두고 할 뿐이지요. 지난날 발자국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건 고정물이 없이 흘러나와 돌아가는데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 드니까 일도 안풀리고 몸에도 병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한번 왔다가 한 철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냥 놓고 사시지요. 자식들에게 뭘 바라시지 말고 저들도 마음 공부해

모든 경계는 나를 성숙시키는 공부재료 고정된 것은 없으니 항상 변하고 흐를 뿐

할 수 있게끔 마음을 내주시면서 말입니다. 낳아서 길러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몸통이만 키워주기보다 더 도리를 배워주는게 두고두고 빛이 되길 않겠습니까?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문 저는 큰스님께서 생활의 모든 고는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별 생각없이 듣고 있던 중 어느 날 관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를 주인공이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작은 자산을 잃었고 남을 원망하고 애를 끊으며 남편을 미워도 했었는데 지금은 주인공을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년째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니깐 문득 이것도 부모님에게 불효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게 잘 돌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기만하 보면 작은 일에도 보상은 은근히 바라는 것도 마음에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없앨 수 있는지요? 큰 스님의 가르침을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답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내게 묻는 군요.

믿고 놓고 관하라. 그것 아닙니까? 모든 경계가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되놓는 것도 아실 겁니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놓고 또 놓고 관해 보세요.

피부가 안좋아 고민입니다

문 큰스님 저는 요즘 겨울만되면 고민에 빠집니다. 제 피부때문입니다. 직업이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것인데 피부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데 자신이 없

결단 내리려면 마음 약해져

문 심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이 어려울때 쉽게 마음이 상하고 포기를 하게됩니다. 주인공 자리에 믿고 맡기고자 해도 현실에만 마음이 쓰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자 하는데 마음이 자꾸 약해지기만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일체 모든것을 주인공자리에 맡기고자 하는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내속에 거대한 컴퓨터가 들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기에다 내가 일거수 일투족, 또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낱말이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는 입력했던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때든지 두드리는대로

친구와 싸운뒤 무척 힘들어요

문 안녕하세요 큰스님! 저는 6살까지 안양본원에 다녔던 학생이예요. 7살때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무산에 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5학년때 우연히 같은반 아이와 같이 종교이 야기를 하다가 6살까지 안양한마음선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무산에 와서 못다니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이도 한마음선원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같이 부 산지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큰스님이 말씀하셨죠? 주인공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저 지금도 절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너무힘들어 요 아이들처럼 싸워서 기분도 나쁘고 공부도 안되고 그래서... 주인공자리에 놓을려고 해도 그게 잘 안돼요. 어떻게 하는게 주인공 자리에 놓는거죠?

꼭 가르쳐 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아이들처럼 싸워서 기분 나쁘고 공부도 잘 안되고 그러는게 모두 다 주인공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년·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년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나쁜 환경은 곧 나를 가르치려는 배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 경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가 어디서 일어났든간에 결국에는 그 경계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계들도 우선은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써 경계 되는데 내가 경계 되는 경계란 결국 내가 수억겁 전으로부터 지어 온 것의 결과로서 나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제의 업이 경계가 되고 오늘의 경계가 업이 되어 내일의 경계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경계 속에서 그것을 살아하거나 좋아하고 미워하거나 사랑하고 한다면 그 경계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무거운 보배에 미려라는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나를 향해 안락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관념이 없다면 그 어떤 경계도 맑은 거울에 비친 풍경과 같은 것이다. 오직 비취 보일 뿐 애중이나 호오에 판단이 따르지 않으므로 미혹과 번뇌도 불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다가온 경계에 떨떨매지 말라. 다가온 경계를 붙들고 꿈꾸거리지 말라.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하여 두 번 괴로워할 것인가. 경계가 타치니 괴롭고 그 경계에 얽매이니 또 괴로운지라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자초하려는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타치는가' 하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야 성숙할 기회를 맞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곧 자기의 미래를 좌우한다. 결정권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기워하는 것은 바로 간략하는 마음이니 중생심이다. 주인공으로서의 마음은 특이 밝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고로 순경에 애착을 두어 주인공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도리어 중생심은 복돋을 뿐이니 공한 도리를 알지 못함이라, 도에는 군더더기 하나 불을 자리 없다. 도는 활발하고 드 높고 시원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쁜 환경이란 사실은 나를 가르치려는



주인공의 다른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에 처해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 버리는 것이 변명이 될 수도 없고 당연시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알고 보면 주인공의 배려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르치려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아니 지나치다 그렇지 않다 할 것도 없지만 역경계가 타쳤을 때 공부하는 바가 더 많다. 고로 역경계가 타치거든 공부하는 기회로 알고 넘기도록 해야 한다. 넘기 힘든 고개가 넘고 나면 더 보람된 법이다.

모란 돌을 쪼는데 정을 쓰듯이 경계란 것은 나로 하여금 돌 아닌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나를 통달게 하느라 위해 이설전심으로 상대를 통해 나를 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계가 타쳤을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니 남을 중요할 것도 배신할 것도 없다. 오직 주인공에 감사하는 환희의 웃음 띤 얼굴만이 공부하는 이의 모습일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순경계가 오면 좋아하고 깨달은 사람은 역경계가 타치더라도 절절 웃어버린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역경계가 타치면 슬퍼하고 안절부절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순경계가 와도 묵연히 흘러 보낸다. 타치오는 경계는 같지만 그것에 응대함은 어찌 이리도 서로 다르겠는가. 실로 수

행자의 도덕은 경계에 타쳐서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계를 묵연히 수용한다 함은 참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조차도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경계는 자신이 유별한 것임을 알고, 나아가 그 경계를 곧 나를 단련시키는 길잡이로서 나는 그것을 통해 진화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억울하지 않 꼭 참고 나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경계를 마음대로 거부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묵연한 자세인 것이다.

어떠한 경계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번뇌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탐욕, 괴업, 갈애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본래 텅 빈 허공의 환으로 생긴 신기부처님 일어난 것이다. 흰구름처럼, 번갯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눈썹 날 사람이 멀쩡한 허공에 꽃보라가 날리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안락의 경계는 그러한 것이다.

모든 경계가 필경은 나와 다르지 않다. 자기에게 타치오는 슬한 문제들은 결코 피하려 한다고 피하지 않는다. 결코 들어 아니라는 믿음으로 놓고 맡길 때 모든 경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 경계를 통해 불멸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협찬: 주인공